

북미 심장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신규 공장 설립 위해 美 조지아 주와 MOU

2025년까지 총 16억7000만 달러 투자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와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일 신규 배터리 공장이 설립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청사에서 조지아주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에 연간 9.8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었다. 1단계인 2022년까지 10억 달러, 2단계인 2025년까지 총 16억70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런 투자 금액은 조지아주 역대 외자 유치 중 최대 규모이며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배터리 공급사 중 북미 시장에서 최대 생산 캐파(Capacity)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은 커머스타 주청사에서 조지아주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SK이노베이션의 신규 배터리 공장 설립을 통해 2025년까지 조지아주에 약 2000명의 인력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창출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조지아주 정부는 2월 중 착공을 목표로 하는 SK이노베이션의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 미래 자동차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부지로 조지아주를 선택한 것은 조지아주의 친기업 정책 덕분이었다”라며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더욱 크게 성장시켜, 조지아주와 나누는 행복의 파이도 함께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수련 기자 moonsr@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일 신규 배터리 공장이 설립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청사에서 조지아주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Nathan Deal 조지아 주지사가 MOU 체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용기/ Beats by Dr.Dre 헤드폰

몇 번인가 기자가 된 것을 잘했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 평일 낮술을 먹을 때나 곁은 취재, 속은 사심 가득히 박람회나 행사장을 돌아다닐 때, 그리고 얼마 전 퇴근길에 집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Beats by Dr. Dre'의 헤드폰을 봤을 때, 김경호 형님(나이를 유추할 수 있다)에 미쳐 살던 학생시절에도 비싼 이어폰은 감히 꿈도 못 꿔기에, 'b'는 여러 의미로 대한민국을 떠돌아다니는 마린보이나 쓰는 거라고 생각했다. 체험기 작성을 위해 받은 제품은 'Beats Studio3 Wireless Headphone'. 자꾸 영어로 표기하는 게 힘들지만 비츠의 정식 표기 방식이 아니니 아쩔 수 없다. 취재 목적이지만 고가의 헤드폰을 요청하는 터라 미안한 마음에 “예쁜 색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자 ‘블루’ 색상이 도착했다. 슬램덩크 북산의 색깔인 검은색에 빨간 ‘b’를 내심 비웠다는 건 비밀. 얼마 안 가 파스텔톤을 섞어 유아하면서 스타일리시한 ‘Skyline Collection’ 시리즈가 나와 땅을 쳤다는 건 더더욱 비밀이다.

진화된 노이즈 캔슬링 탑재 최대 40시간 재생...최강 배터리

Studio3는 귀를 완전히 덮는 ‘오버이어(over ear)’ 제품이다. 반면 같은 라인의 ‘Beats Solo3 Wireless Headphone’은 컷바퀴에 딱 맞게 감싸는 ‘온이어(on ear)’로, Studio는 착용감이 좋고 Solo는 휴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자고로 헤드폰 유저라면 목에 걸었을 때 폭발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크기가 작은 Solo보다 Studio를 써야 하는 원래 음악을 사랑했고 평생 Beats의 헤드폰만 쓰고 살았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었다. 실제로도 멋있다. 물론 헤드폰이 걸려 있는 목 주위만.

디자인 외에 장점을 나열하자면 Pure ANC(Adaptive Noise Canceling) 기능을 빼놓을 수 없다.

을 차단한다. 여기에 헤드폰과 귀 사이의 안경 다리나 머리카락까지 고려한 최적의 노이즈 캔슬링을 제공해 어디서든 온전한 음악에 빠질 수 있다.

주변 사람에게 헤드폰을 씌워준 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주면 무표정하던 얼굴이 눈이 동그래지며 ‘엄지척’하는 걸 볼 수 있다. 3명에게 실험한 결과 조건반사처럼 같은 표정으로 엄지를 치켜들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내릴 곳을 놓친 것도 수차례라도 착시간에 맞춰 알람을 맞추는 습관이 들었고, 지하철 안에서 자꾸 두리번거려다 이상한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비행처럼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된 헤드폰이라고 꼽는 이유다.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배터리다.

Studio3와 Solo3는 ANC 기능을 켜 상태로 22시간 음악 재생이 가능하며, ANC 기능을 끈 상태에서는 40시간 재생할 수 있다. 하루 5시간 넘게 사용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 충전하면 됐고, 만약 배터리가 방전되더라도 5분 충전으로 3시간이 작동되는 급속충전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유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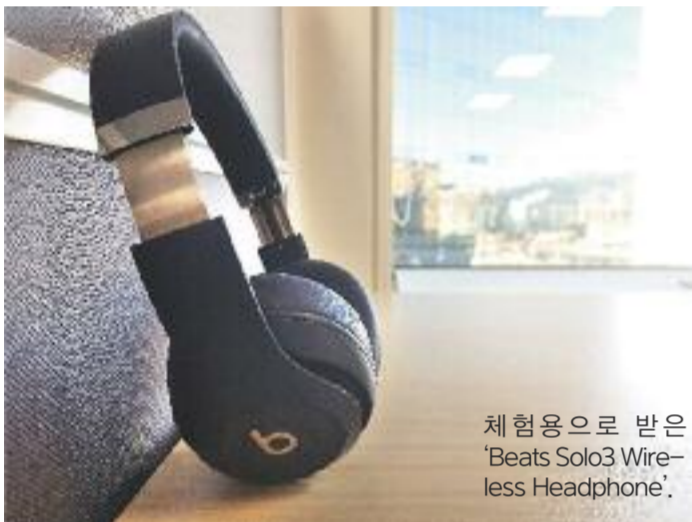
이 같은 기능은 3 버전으로 넘어오며 장착한 애플의 ‘W1’ 칩 덕분에, 전력효율성을 높여 배터리 수명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페어링 시간 단축 및 거리 상승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단점을 꼽으려면 월급쟁이 기자에겐 너무 버거운 ‘가격’을 들 수 있다. Studio3의 경우 정가가 41만9000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나 또한 그랬으나 체험기를 쓰는 시점에서는 ‘하루이틀 쓸 것도 아닌데 살 수 있지 않아?’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하루 빌려갔던 동료 기자 또한 만나줬던 안돼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살 것 같기도 하다...’라고 카톡 메시지가 온 것처럼.

소개하다 보니 음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외됐다. 그러나 Beats의 명성이 너무나 높기도 하고, 여기에 ANC 기술까지 추가된 마당에 나 같은 막귀가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혹시 연말 보너스를 받았는데 아직 사용처를 찾지 못했고, 목이 허전하다면,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제품을 찾으면서 충전이 귀찮다면, Beats 제품은 어떠한지.

양진영 기자 camp@



체험용으로 받은 'Beats Solo3 Wireless Headphone'.

Studio3는 전작 Studio2와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ANC기능, 다시 말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됐다.

사실 소니, 보스 등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춘 헤드폰도 많고 내가 사용해본 건 Beats밖에 없어 객관성이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Beats의 ANC 기술은 특별하다.

비행기 제트 엔진의 소음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초창기 노이즈 캔슬링은 소음을 반대 대역 주파수 파형의 사운드를 통해 상쇄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은 주파수가 겹쳐 사운드가 사라지거나 다른 대역의 노이즈는 상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반면 Pure ANC는 좌우 사운드의 넓은 영역대에서 노이즈를 상쇄하고 초당 5만회의 보정으로 주변 소음

더 컴퓨터 / 이지세이버 /

VR의 선구자이자 스마트홈 선도기업 ‘정평’

최근 5G 상용화와 함께 미래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현실(VR)을 1998년에 개발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양기출 이지세이버(주) 사장은 당시 VR관련 협회를 설립하고 벤처 캐피탈 무한기술투자로부터 투자까지 받은 바 있다.

결론적으로 벤처 투자자들이 꺼지며 너무 앞서갔던 VR사업은 실패로 끝났지만 양 사장은 당시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점이 컸다고 말한다.

양 사장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술이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안 되는 걸 깨달았다”며 “향후 5년 안에 나올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생각해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양 사장의 경험이 녹아든 것이 바로 이지세이버의 ‘IM HUB’다.

VR과 전혀 다른 분야지만, AI플러그의 전망을 미리 예측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탄생한 세계 최초의 AI플러그다.

기본적으로 IM HUB는 가전기기 콘센트와 연결되는 소켓으로 실시간 사용량 확인, 원격조종 전원 차단, 타이머 설정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온도감지 기능을 통해 전기 사용량 과다로 인한 과부하가 걸릴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낭비되는 전력을 차단해 10~30%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SK텔레콤에 IM HUB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NUGU)’와 연결될 경우 음성으로 동작을 실행할 수 있으며, 과부하, 고온에 대한 음성 경고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양 사장은 “AI로 인한 동작은 기본이고, 여기에 사용자의 빅데이터까지 축적할 수 있다”며 “또 공용 사무실이라도 누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어 개인별 요금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지세이버는 SK텔레콤 스마트홈 인증모델 1호 사업가로서 지난해 말부터 중소제조사를 위한 인증

기 전용플러그 ‘Im PLUG’, 수면분석기 ‘Sleepit’, 전기차 충전시스템 ‘EZEV’ 등 콘센트부터 헬스케어 제품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미래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양 사장의 통찰력과 결단력의 결과다.

그는 앞으로 스마트홈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세계 최초 시플러그 개발

중기에 AI 인증모델 제공



양기출 이지세이버(주) 사장이 SK텔레콤에 공급하고 있는 AI콘센트 ‘IM HUB’를 자랑하고 있다.

모델 제조 및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스마트홈 개발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사들에 이지세이버의 기술력을 제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지세이버는 IM HUB 외에도 보급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SMART NFF’, 스마트 가전기

고 강조했다.

양 사장은 “5G, AI스피커 등이 준비됐지만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많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IoT(사물인터넷) 시장은 대기업 혼자 갈 수 없는 구조로 전문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IT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서울대학교
 한국전력공사

제 12기 서울대-한국전력 에너지 CEO과정 모집안내

미래 에너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서울대-한국전력 에너지CEO과정에 에너지 산업계의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 공·사 기업체의 경영자 및 임원 - 정부 각 기관의 고위 공무원 - 판사·검사 등 법조인 - 각 군의 장성급 장교 -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타 연구기관의 고위 연구원	접수일정	2018. 12. 19(수) ~ 2019. 02. 08(금)
접수방법	- 온라인 입학지원 및 서류제출 - 자세한 지원절차 및 서류, 교육부서는 http://snukep.kr 참고	문의처	- 서울대-한국전력 에너지CEO과정 운영사무국 - TEL : 02)878-7242 - E-mail : snu-kep@snu.ac.kr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130동 511호
교육기간	2019. 03. 08 ~ 2019. 06. 21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17:30 ~ 20:50		